

## 예술교육정책 현안에 따른 해외 무용영재 교육과정 연구\*

장인주\*\*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한국의 무용영재 교육 현황   | 참고문헌     |
| III. 해외 무용영재 교육과정 탐구 | Abstract |

### I. 서론

2010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의 5천436개 초중고교에 예술강사 4천156명을 배치,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분야별 강사로는 국악 1천568명, 연극 845명, 영화 330명, 무용 801명, 만화·애니메이션 500명, 공예 49명, 디자인 39명, 사진 24명 등이다. 이미 2008년에 교육과학기술부와 업무협약도 맺었으며, 2012년까지 예술강사수를 5천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005년부터 실시해온 예술강사지원제의 긍정적인 결과에 따른 전폭적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10년 6월 기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통계에 의하면 전체 예술강사 4천150명 중 무용강사는 77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한편 201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하반기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전 국민 평생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을 내세웠다. 실천과제 중에는 국공립 유치원 500곳에 전

\* 본 논문은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에서 발간한 『예술영재교육과정 연구』 중 저자가 집필한 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미흡한 논문을 정성껏 수정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주저자 및 교신저자, 국립현대무용단 사무국장, c.injoo@gmail.com.

문 예술강사 250명을 파견하여 유아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본 사업을 위하여 전국 교육청과 협력 하에 대상 유치원을 선정하고 전문 예술강사도 선발했다. 소정의 교육 및 연수 과정을 거친 국악, 연극, 무용, 미술, 공예, 음악 등 6개 분야의 예술강사가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유치원에 파견되어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한다는 목표이다. 2011년부터는 지원대상을 어린이집까지 늘려,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체의 10%에 달하는 2,600개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유아의 창의력과 감수성 함양은 물론 유아의 정서 및 표현력 발달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본 사업은 특정한 대상이 아닌 공교육차원의 예술교육 평준화를 이룩한다는 점에서 앞서 발표한 초중고교 예술강사 증대와 함께 주요 교육정책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문화예술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학교 문화예술 교육강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한국에서의 예술영재교육은 어떠한 행보를 보여주었는가.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예술영재 교육정책을 추진해 왔다. 2002년 4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영재교육을 공교육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해 11월 교육인적자원부는 5개년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과 영재교육권장기준을 발표하였으며, 각 시·도 교육청에서 종합계획과 권장기준을 마련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했다<sup>1)</sup>. 2005년에는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을 설립하여 예술영재교육에 관한 이론적 기초연구, 정책연구, 예술영재선발에 관한 연구와 개발, 교육과정 연구 및 과정 등을 개발했다. 이렇듯 이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해온 연구는 예술영재 교육관련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고, 실행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은 2006년 2월 『예술영재교육 발전방안 연구』에 이어, 2006년 12월 『예술영재교육과정 연구』를 발간하는 등 예술영재교육의 실천을 위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앞서 언급한 2010년 예술교육평준화의 본격적인 실천이 있기까지 특정대상자 즉 영재를 위한 예술교육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실행이 기반이 되었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실행되어야한다는 요구에 따라 예술영재교육과

1) 문화관광부·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2006). 『예술영재교육 발전방안 연구』, p.1.

정 중 무용분야에 집중해, 한국 무용영재교육기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의 무용영재교육과정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해외 교육기관 웹사이트 및 기관방문 등을 통한 현장을 분석하는데 주력하였다. 영국, 미국 등 학제가 다른 국가의 영재교육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연령분류, 학습목표 등 일정한 기준으로 통일된 자료를 제시할 수 없었다. 개괄적인 분석을 우선시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각 기관마다의 장점과 그에 따른 독창적 교육목표와 방향 탐구에 주력함으로써 한국형 영재교육의 정책 및 목표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따라서 I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미 다량의 선행연구가 제시된 바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무용영재교육의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반면 III의 경우 해외의 교육과정의 예를 연구했다. 이미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영국과 미국 중심의 교육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하였으며, 세계 우수 교육기관을 통합하여 시사점을 제시했다. 전체적인 커리큘럼보다는 무용영재관련 내용을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IV장 결론에서는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무용영재 교육과정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 II. 한국의 무용영재 교육 현황

영재교육진흥법(2005. 12.7 개정)에 의하면 영재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예술영재란 뛰어난 예술성을 토대로 예술적 지식을 내면화하고 발전시키는 능력, 예술을 찾아가는 능력을 잘 갖춘 사람을 말한다.

또한 영재란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지적능력,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 능력, 과제 집착력, 자존심, 기회, 창의성 등과 같은 비지적 요소가 중요하며, 이러한 영재성이 개발되어 특수재능으로 나타난다<sup>2)</sup>. 예술에 있어서의 영재에 대한 정

2) 정희자(2003). 무용영재교육의 필요성과 선별기준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지』 35, p.157.

의도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한국의 예술영재교육체계는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된다. 1) 시·도 교육청 산하 예술영재교육원 및 예술영재학급, 2) 전국의 예술 중고등학교, 3) 예술관련 고등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이다<sup>3)</sup>.

첫 번째 경우인 시·도 교육청 산하 예술영재교육원 및 예술영재학급에서 음악, 미술 분야는 교육하고 있으나 무용 분야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기관을 통해 무용영재교육을 실시해왔다. 첫 번째 기관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용이 독립교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최근 들어 일고 있는 조기 발레교육 붐에도 불구하고 국내 문화예술계에서 음악이나 미술 분야에 비해 무용분야는 여전히 변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예술적 능력은 지적 능력이 아닌 특수한 능력으로 간주되어왔다. 학교에서 다룰 분야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교육관련 연구에서 예술적 능력이 탁월한 영재를 위한 차별화 된 교육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고, 발레에 재능이 있는 소수의 학생들은 예술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사설교육기관에서 발레를 습득하는 것이 전부였다<sup>4)</sup>.

한편 한국의 학제에서 무용과목은 체육교육 내에 포함되어 있다. 1974년 체력장 제도도 도입되면서 무용과목의 비중은 더욱 낮아졌고, 무용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더욱 애매해졌으며, 독립된 과목으로서 이루어지는 타 분야의 예술교육에 비해 발전이 저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2002년부터 무용 교과목 독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학 이전의 공교육 차원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따라서 2003년 이후부터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무용교육은 학교 내에서보다 교외수업이 더 많이 이루어졌으며, 타 장르에 비해 가장 낮은 관심과목으로 분류되어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용영재교육은 조기 무용교육기관 및 무용전문인 양성의 주축이 되어온 예술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예술중학교의 경우 국

3)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2006). 『예술영재교육과정 연구』, p.55.

4) 정희자(2005). 발레영재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외국 발레학교의 현황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6, p.24.

립국악예술중학교, 예원학교 등을 포함하여 6개교에서 무용전공생을 교육하고 있으며, 예술고등학교의 경우 21개교에서 무용과를 두고 있다. 이들 학교의 무용전공생 선발과정 및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 삼분법에 따른 전공 실기시험으로 치러지는 선발과정에서부터 실기자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이 무용수로 성장하기 위해 주요 요건으로 꼽히는 신체조건과 기타 여건을 간략하게 심사하는 면접이 병행되고 있다. 이러한 선발과정은 대상자의 잠재력을 판단하기 힘들고, 대상자는 당해 학교의 특정 교수법에 해당하는 실기위주의 입시준비를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비록 실기자 중심의 선발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에서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해야 하는데, 교과목 구성에 있어 폭넓은 주제의 무용이론과 타 예술장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부족한 실정이다.

예술고등학교의 경우 전문화된 예술교육을 실시하기보다 입학에 희망하는 대학의 특성에 맞춘 입시형 교육이 행해진다. 비록 이러한 점은 예술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내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용분야의 경우 특히 교과편성을 통해 정규수업에서 이를 소화하지 못함에 따라 방과 후 수업을 통한 보충과정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그에 따른 학습자가 부담하는 노력과 학비는 과중하다.

한편 무용 실기과목 중 발레분야는 선화예술 중고등학교의 경우 러시아 바가노바 교수법을 도입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높은 효율성을 보장하는, 바람직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균등한 비중의 능률적 창작수업이 미흡한 탓에 학습자의 창의성 개발에 있어 불균형적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외 우수 콩쿠르 입상 실적을 보더라도 현재 한국의 발레 수준은 세계 정상급에 도달해 있다. 그러나 세계 정상급의 발레 수준이라는 평가는 '춤추기'에 해당하는 평가일 뿐이며, 이것이 한국의 무용예술 및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될 수 없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세 번째 영재교육기관에 해당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운영하던 예비학교(예술실기과정)를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한국예술영재교육원으로 전환했다. 이 교육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최초의 예술분야 영재교육원으로 미술, 음악, 무용, 전통예

술 등 4개 분야에서 초·중등생 100명을 대상으로 전액 국비로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지도하며, 교육대상자는 방과 후, 주말을 이용하여 연간 100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미술 분야는 2008년 8월, 나머지 분야는 2009년 2월에 처음으로 대상자를 선발했다. 수학, 과학 등 영재교육을 실시해오던 정부가 예술분야로 그 영역을 확대한 첫 걸음이 되었다.

과거 무용분야 예비학교의 운영방향을 살펴보면 예술영재 선발제도와 예술실기 연수과정 모두 발레분야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선발대상자가 발레분야에만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비공식적으로 밝혀져 있다. 한국무용의 경우 전통예술원 무용과에서 전통무용, 궁중무용, 한국무용레퍼토리 등 한국무용 전공생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현대무용의 경우 기능적 측면과 더불어 창작과 안무 측면의 작업이 많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조기 입학에 따른 수행이 어렵고, 실기연수과정에서 학습할 내용이 한정되어있다. 따라서 대외적 성과를 내기 쉬운 발레분야에 집중되어있었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으로 발족한 이후에도 이러한 특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교육과정에 있어 예술중고등학교와 그 외 사설학원에서 소화하고 있는 발레실기교육의 장과 유사한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무용원 발레전공생의 교육과정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타 교육기관과 비교하기 쉽지 않으나, 운영 면에서 국립발레단 문화학교, 유니버설 발레아카데미 등 발레단 부설기관과 크게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무용원 정규학생과의 교류 또는 타 장르 무용분야에 관한 학습 등 차별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고등기관으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특성화학교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III. 해외 무용영재 교육과정 탐구

#### 1. 영국

##### 가. 영국 왕립무용아카데미(Royal Academy of Dance, RAD)

RAD는 1920년 설립한 무용교육기관으로 엘리자베스 2세의 후원을 받고 있다.

고전발레를 교육과정으로 삼아 학생 뿐 아니라 지도자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강의 안(syllabus)에 의존한 단계별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평가제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심화시키고 향상시킨다. 무용전공생, 무용취미생, 무용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RAD 무용학교(RAD dance school)', '휴일학교(holiday school)', '집중과정(short course)', '장애인 과정(special needs)', '개인수업(privet lesson)' 등과 같은 발레분야 전문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RAD에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모인 무용학도들의 학습욕구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충족시키고 있다. 무용예술 특성화 학교로서 뿐 아니라 보편화 학교로서의 역할도 능률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정'의 경우 장애 어린이가 무용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발전시키도록 유도하여, 일반 어린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과 유쾌함을 스스로 느끼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목표이다. 무용 수업을 통해 학습한 여러 기술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데 주력한다. 교과내용으로 자세와 숨쉬기 향상, 신체인식력 키우기, 자신감·자의식·자기훈련능력 키우기, 팀 구성원으로서 역할 이해하기, 사회성 기르기, 집중력·성취감·독창력·기억력 향상시키기 등이 있다.

이 학교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필요에 의한, 필요에 따른' 교육과정 개설이라는 측면에서 본받을 점이 많다는 것이다. 국내에도 많이 소개된 바 있는 발레전공생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무용지도자 과정 외에 무용 취미생까지 학습대상자로 삼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실기전공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내의 무용교육과 비교했을 때 이들의 프로그램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다.

#### 나. 영국 런던 라반센터(Laban Center for Movement and Dance)

런던 라반센터는 무용수이자 안무가, 무용이론가인 루돌프 본 라반이 설립한 움직임 연구소이다. 1948년 맨체스터에서 움직임 예술스튜디오(Art for Movement studio)로 발족해 런던으로 이주한 후, 1975년 라반센터로 개칭했다. 무보법 라바노테이션(Lavanotation) 뿐 아니라 다양한 무용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컨템퍼러리댄스를 통해 학습자의 잠재력을 키우고 꿈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어 무용예술가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교육목표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는 전통적 교육과정이 아닌 혁신적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특수한 교육을 이루고자

함이며, 둘째는 훈련에 기초한 요소를 실제공연에서 활용하도록 함이다. 또한 컨템퍼러리댄스 테크닉을 교육과정 중심에 놓아 이것이 안무와 직결되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안무능력과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영역별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하고 있으며, 각 영역의 목적과 이수시간은 개별적이다. 첫째, '대학교, 대학원 과정'은 실기, 무용과학, 안무 등과 관련한 BA, MA 자격증 수료과정 등 8개 과정이 있다. 두 번째, '전문분야 과정'은 특정분야 전공자를 대상으로 6개 학위수료과정이 있다. 각 교과는 한 분야의 전문성을 획득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설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야를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세 번째, '어린이 과정'은 '프로젝트', '청소년과정', '어린이 수업', '무용능력개발(dance ability)'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프로젝트'는 어린이 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개설되는 단기간 이벤트 과정이다.

어린이 무용영재교육의 필요성을 적극 반영하여 '프로젝트' 과정에 '브로클리(Brockly) 기초예비학교'라든가 '어린이 워크숍', '고등 여름학교', '어린이 자유공연', '세지힐 학교(Sedghill School)', '무용과 드라마 프로젝트'를 개설한 바 있다.

#### 다. 영국 런던 현대무용학교(London Contemporary Dance School, LCDS)

1969년 설립한 LCDS는 컨템퍼러리 작품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현재 170명 이상의 학생이 교육받고 있으며, 교육과정으로 대학교, 대학원, 전문인 양성교육프로그램, 컨템퍼러리댄스에 관한 연구과정 등이 있다. 교육목표는 무용가의 잠재력을 끌어주는 것이며, 나아가 열린 교육방법을 통해 혁신적이고, 흥미로운 연구 분야를 제시하는데 있다.

그 중 청소년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기표현과 신체강화를 교육목표로 하며, '댄스퓨처', '고등교육', '허리케인 보이즈 프로젝트', '토요수업' 등이 있다. 특히 '토요수업'은 여러 교육목적 중에서도 창의력과 테크닉을 중점적으로 함양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습자의 수준과 관심대에 따른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표 1. LCDS 청소년교육 교육과정 및 내용

과 정	내 용
댄스퓨처	9-14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단계별 수업으로 진행한다. 이는 RAD 교육과정인 'Chance to dance' 로 운영되며, 추가적인 수업은 '토요수업' 에서 운영한다. 오직 초청선발만으로 참여가능하다.
고등교육	10-17세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적인 예술가 양성을 목표로 삼는다. 집중반이나 정시제 수업, 전공 이전 단계수업으로 구성한다. 춤을 경험하길 원하며, 음악적 감각이 학습자에게 유용하지만, 이미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불필요하다. 학습자가 무용경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열정과 헌신 그리고 잠재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 강점이다. 학기 중에는 주말에만 수업을 개설하며, 집중반은 방학 동안에만 열린다. 교육내용에는 컨템퍼러리댄스, 발레, 필라테스, 레퍼토리, 안무, 주제연구가 있다.
허리케인 보이즈	10-14세 남자어린이를 대상으로 1주일 동안 열리는 집중과정이다. 남자어린이들이 안무가나 교사로부터 공연출연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다. 수업에 참여하기 위한 오디션은 없다.
토요수업	5-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이 대상이며, 창조성을 키우고 테크닉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수업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도전적인 움직임을 연구하는데 목표를 두며, 교사는 아름다움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을 장려한다. 교육내용은 리듬, 공간, 신체 인식력 키우기, 집중력 향상, 신체기술 습득, 감상하기 등이 있다. 수업진행을 위한 반주는 녹음이 아닌 라이브 음악을 사용하여 창조성과 자주성을 고무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 라. 영국 리버풀 공연예술 인스티튜트 (The Liverpool Institute for Performing Arts, LIPA)

1996년 창립한 LIPA는 현재 세계 유수의 교육단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다양한 예술과 문화습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총체적인 예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무용, 음악, 연극이 교집합을 이루어 시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주력 교육목표는 지속적으로 예술과 관련한 경력을 쌓고자 하는 학생이나 엔터테인먼트 경영에 흥미가 있는 이들에게 효과적인 교수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의 과정으로 '4:19과정' 이 있다. 2003년 개설된 정시제 공연예술 교육과정으로 매주 325명 이상의 학생이 참가하고 있다. 공연예술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학문과 장르를 연구하는 것이 목표이다. 음악과 연

표 2. LIPA 공연예술(무용) 어린이·청소년과정 학습목표

연령(세)	학 습 목 표	수업시간
4-5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상력 확대, 자신감 기르기</li> <li>• 삶의 활동과 공연예술의 관계 이해하기</li> <li>• 노래, 연기, 춤 배우기</li> </ul>	1시간 30분
7-19 (7-9, 10-12, 13-15, 16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 연기, 춤의 기본원리 익히기(춤을 중심으로)</li> </ul> <p>&lt;노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테미나를 기르고 목소리의 수명과 건강을 위한 기술훈련</li> <li>• 신체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이해하기</li> <li>• 팝과 고전음악, 뮤지컬 등 다양한 음악 스타일 경험</li> </ul> <p>&lt;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무와 공연</li> <li>• 신체와 공간인식</li> <li>• 컨템퍼러리댄스와 대중춤, 뮤지컬, 신체극 등 다양한 장르의 춤 익히기</li> <li>• 움직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기</li> </ul> <p>&lt;연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기과정의 이해와 기초지식 습득</li> <li>• 스피치, 말투, 악센트 사용, 합창 스피치의 테크닉 학습</li> <li>• 즉흥에 대한 자신감 획득</li> </ul>	3시간 30분

극 그리고 무용이 혼재된 교육과정은 나이에 따라 단계별로 개설되며, 이는 학습자의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고, 나아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 준다. 무엇보다 이 교육과정의 의의는 즐거움을 전달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장으로서의 역할이다. 나이에 따라 6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학기 동안 학습한다(<표 2> 참조).

## 2. 미국

가.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 예술-과학기술 영재학교(Appomattox Regional Governor's School, ARGs)

대학 무용과 입학 또는 전문훈련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준비한다. 지적, 창조적, 개방적, 탐색적 태도가 필요한 무용예술의 강도 높은 기술훈련에 중점을 둔다.

신체적 숙달을 위한 힘든 훈련을 거치면서 학습자는 자신만의 고유한 예술적 자질을 계발, 표현하도록 지원받는다. 물론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무용훈련을 받아 자신의 예술적 감성과 기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학습자가 입학하기도 하지만, 무용에 관한 교육배경이 전혀 없는 학습자에게도 무용을 선택과목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2006년 무용과는 리치몬드 발레단과 결연을 맺어 버지니아 주립 발레단의 전문가 집단생활을 체험하고 있다. 무용과의 연중행사인 봄 공연도 그 중 최고의 시설인 리치몬드 발레 스튜디오 공연장에서 열린다.

공연자와 관객간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공연경험은 무용표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주력한 무용과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들이 공연에 참가하며, 봄 정기공연을 통해 출연자이거나 스텝으로서 또는 둘 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무용과는 국립고등학교 무용협회의 일원으로 창조적인 작품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연중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연감상과 무용예술에 관한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모든 교육과정의 수업목표는 7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진다. 신체훈련, 건강 인식(Health awareness), 창의력 증진, 전문성 습득, 학문연구, 비평적 사고 증진, 예술성 고양 등이다. 특히 건강 인식 카테고리는 실기, 이론 수업에 상관없이 다이어트나 체중관리에 따른 건강악화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학습자는 실기수업일지라도 건강과 관련한 분석연구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체와 정신이 모두 건강한 무용수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예술-인문학 영재학교(South Carolina Governor's School for the Arts and Humanities)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며, 무용, 연극, 음악, 시각예술, 문예창작 등 5개의 전공 분야가 있다. 무용과의 경우 발레무용수 양성을 위한 집중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고전발레 양식에 기초를 두며, 러시아 바가노바 발레학교의 엄격한 교수법을 응용한다. 발레 테크닉, 포인트 워크, 남성 테크닉, 현대무용 테크닉 등의 주요 교과 및 파드되, 캐릭터댄스 등의 고전발레 연출을 위한 수업과 재즈 레퍼토리 등이 있다.

#### 다. 미국 그린빌 예술영재교육센터(The Fine Arts Center of Greenville County)

1974년에 세워진 사우스캐롤라이나 최초의 예술 특성화학교이다. 학생들은 재능, 흥미, 동기, 과제 집착도 및 각 분야의 수학능력에 따라 선발된다. 예술적 재능이 있고, 집중적 예비전문가 과정을 밟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한층 더 진전된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한주에 5일간 오전 또는 오후에 110시간의 수업을 이수하며, 나머지 시간은 본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한다. 매년 약 30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며, 90% 정도가 상급학교로 진학한다.

발레와 현대무용 전공 학습자는 예비전문가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장르의 무용도 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훈련을 받는다. 지적으로 성숙하고 다재다능한 무용수로 성장하기 위해 일반지식을 습득하도록 강조한다. 재즈나 탭댄스 등을 배우지는 않지만, 고전발레와 현대무용에 근거한 무용테크닉을 기본적인 기술훈련으로 습득함으로써 타 장르의 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장점은 학습자가 졸업 후 어떤 유형의 대학무용교육과정도 무리 없이 이수할 수 있는 자질을 습득하는데 있다.

또한 간단한 운동을 연구하고, 수행할 즉흥몸짓을 통한 창조성 탐색이 이루어진다. 무용사를 공부하고, 현재의 대학 및 직업현장에 관해서도 배우며, 해부학, 올바른 몸의 자세와 발레용어를 숙달한다. 대개 무용용어나 운동생리학도 공부한다. 상급생은 이곳이나 인근 다른 학교에서 공연할 새로운 안무준비를 위한 방과 후 수업을 행하기도 한다.

### 3. 해외 무용영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분석에 따른 시사점

앞 장에서 제시한 영국 4개 기관과 미국 3개 기관 외에 프랑스 앙제 국립현대무용센터, 파리 국립 음악·무용 콩세르바트와르 등의 교육과정도 검토한 후, 비교분석하였다.

### 가.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의 원칙

해외 무용영재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무용의 영재성에 관한 정의에 있어서 우리와 크게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신체기능의 발달'이 아닌 무용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감성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RAD가 '장애인과정'을 개설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용을 통한 사회성, 집중력 양성이라는 포괄적 목표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런던 라반센터의 '무용능력개발' 수업에서도 볼 수 있다. 학습부진아, 정신지체아 등까지 수용함으로써 전문무용인 양성에 있어 뛰어난 실적을 입증한 바 있는 명문학교에서도 무용의 보편화 교육에 힘쓰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특징은 세계적인 경향이다. 파리지역 국립 콩세르바트와르의 경우 극소수의 전문무용수 양성은 물론 초보자에게 신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키워주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전문훈련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버지니아 주지사 예술-과학기술 영재학교의 경우에도 '건강 인식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한국의 교육도 그 범위를 넓힐 때 비로소 진정한 유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 나. 자격증 취득에 따른 실질적 교육

RAD의 경우 집중과정의 지도자과정에서 '대학과정', '대학원과정', '직업교육과정' 등의 질 높은 교육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모두 자격증 제 중심으로 행하고 있다. 또한 파리 국립 음악·무용 콩세르바트와르는 실기자 과정과 별개의 '무보법 과정'을 개설해 무보법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들에게 자격증을 제공한다. 국내의 경우 대학 무용과 정규과정을 마친 경우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자격증을 획득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대학졸업 이후 각자의 적성과 특기에 따라 별도의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중적 노력을 피하고 세부전공별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아래 국가적 차원의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 다. 안무과정 강화를 통한 무용예술가 양성

앞서 지적한 실질적 교육과 병행하여 한국에서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문제는 일

정 수준의 무용실기 테크닉을 겸비한 안무가를 양성하는데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에서 창작과를 개설하고 있으나 일반대학 무용과에서는 안무가 육성을 위한 전공과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런던 현대무용학교의 '코레오드롬' 과정은 독창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안무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안무가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공연에 대한 압박 없이 자유롭게 안무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전문적인 비판과 피드백으로 안무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

앞서 제시한 영국과 미국 외에도 프랑스 앙제 국립현대무용센터의 경우 이상적인 안무가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컨템퍼러리 예술사상을 연구하고, 안무가로서의 소양을 기르기 위한 인문학적 지식을 폭넓게 접하며 동시에 장르 통합형 창작활동을 추구하는 '시도과정'은 무용전공생은 물론 비전공생도 수강이 가능하다. 비전공생인 경우 안무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안무가 단순한 동작과 움직임을 만드는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총체예술을 연출하고, 감독하는 작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안무가가 되기 위한 실습과정인 아틀리에 작업은 준전문가 입장에서 가장 실질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 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국내 교육현장에서는 보기 드문 창작활동이다.

#### 라. 전문가와의 집단생활 체험 중시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 예술-과학기술 영재학교의 경우를 보면 학습자가 전문가 집단생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공연현장에서 직접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공연제작과정에 참가함으로써 피상적인 공연예술이 아닌 구체적인 무대예술로서의 무용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공연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에 대한 관찰을 통해 전문성을 획득하게 된다. 국내의 경우 지도교수와 밀접한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외 전문가를 접할 기회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따라서 폭 넓은 교류와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 마. 소수의 발레영재 양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엄격한 교육프로그램 강조

영국, 러시아, 프랑스는 각각 세계 3대 발레교육프로그램을 자랑한다. 그 중에서

특히 영국 RAD의 발레교육과정은 유아 및 아동교육이 강세를 보이고, 러시아와 프랑스의 경우 전문무용수 양성에 각각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는 국내에서도 소개된 바 있는 바가노바 교수법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법을 세계적으로 널리 전파했으나, 프랑스는 가장 오랜 발레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교육법을 공개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각 나라별 특성이 있긴 하지만 3대 발레교육 강국의 공통점은 소수의 발레영재 양성을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교육과정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발레강국의 경우 엄격한 체격검사를 거쳐 선발한 학습자에게 기숙사 생활을 필수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체중관리, 건강관리, 단체활동을 통한 팀워크 학습 등을 강조한다. 국내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발레영재 집중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함이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정작 사교육장에서 그 열기가 과열되고 있을 뿐이다.

#### 바. 무용실기 장르의 세분화 탈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용과의 전공을 실기장르(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에 따라 구분한다. 가장 세분화가 잘 된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러한 실기 장르 외 이론과, 창작과를 두고 있다. 물론 학습자의 욕구에 따라 타 전공과의 수강도 용이하지만,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공이 정해진 상황에서는 전공수업을 위한 보충학습의 수준으로 타 전공과를 접하게 된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무용과 내 장르별 구분에 그리 집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발레영재를 위한 전문학교 외에는 대부분이 전공별 구조를 세분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습자는 끊임없이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영재성 개발을 위해 자유롭게 탐구가 가능하다. 무용장르의 특성상 실기전공생으로서 일찍이 재능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그 외 분야에서 복합적인 재능을 발견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일찍이 세분화된 전공분야를 정하게 되면 학습자는 쉽게 그 틀을 벗기 힘들고, 학습자 스스로 편협한 시각에서 스스로의 재능 개발에 걸림돌을 만들게 된다. 무용영재는 특정한 기능의 전수생이 아니라 창조적 예술가를 꿈꾸는 공상가가 되어야 한다.

### 사. 타 예술장르와의 통합교육 실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타 예술장르의 교육을 위해서도 무용교육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즉 상호보완적 교육프로그램으로서 통합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컨템퍼러리무용의 선두주자 중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 타 전공생이었다가 뒤늦게 무용에 입문한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술장르간의 경계를 허무는 사고를 교육의 장에서부터 실천한 성과라고 본다. 무용과 내의 세분화된 장르 해체도 중요하지만, 교육과정 내에서는 예술장르간의 경계도 허물어야 한다.

### 아. 일반 무용교육과 무용영재교육 간의 교류가 용이

해외의 경우 무용영재교육은 일반 무용교육에서도 행하고 있다. 해외의 많은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육교육 내에 무용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동교육차원에서의 무용의 기여도는 우리에게 비해 월등하게 우수한 편이다. 즉 부적절한 학제가 교육의 저조한 효율성의 주된 원인인 하지만, 균형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일반 무용교육의 장과 영재교육의 장간의 경계를 높이며 하지 말고, 오히려 경계를 허물고 다각적 영재성 계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IV. 결 론

무용예술에 있어서의 영재성(giftedness)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오랫동안 기술습득이 뛰어난 재능보유자의 능력을 일컬어왔다. 최근까지도 창의적 인간이 되기 위한 학습자 개인의 특성을 연구하기보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신체활동에서 영재성을 찾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신체의 기술적 재능(talent)을 발굴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이 곧 무용영재교육의 실체인 것처럼 부각되었다. 라반 이후 해외의 다양한 영재성에 관한 이론이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무용교육현장에서는 아직도 예술활동을 지적활동과 별개의 영역으로 취급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그러나 스미드-오타드의 무용교육 모델(김희숙, 2001)에서 보듯이 과정(창작)과 결

과(작품)의 동등한 강조를 비롯해 예술적 교육, 미적 교육, 문화적 교육 등 다양한 무용영재교육 개념체계를 확립해가고 있다.

따라서 III장 해외 무용영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분석에 따른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의 한국형 영재교육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신체활동과 지적활동의 공동체계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통한 자아실현
2. 정서활동의 차원을 초월한 예술적 감각과 표현능력배양
3. 신체활동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습득과 자아 개발을 통한 자아신뢰감 획득
4. 종합예술로서 무용의 이해와 이를 위한 열린 사고, 창조적 지능개발
5. 공동작업을 통한 리더십 양성과 합리적 사고 습득

한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예술교육의 목표가 기능습득에 집중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1963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한국 최초 무용과를 설립한 이래 45년에 걸쳐 50개교에 가깝게 팽창한 대학무용과 중심의 무용계 구조에 따른 영향이라고 본다. 삼분법에 근거한 실기위주의 교육, 안무교육의 부재, 국내외 대학 간의 교류부족 등 현 대학 무용과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임명주, 1997; 신은경, 2004) 등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막상 교육현장에서 뚜렷한 전환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교육과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예술 중고등학교 자체적으로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교육관은 실현가능성이 미비한 탁상공론에 그치고 말 것이다.

영국의 공교육 차원의 무용영재교육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의 경우 우리와 마찬가지로 체육교육 내에 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교육차원에서의 무용의 기여도는 우리에게 비해 월등하게 우수한 편이다. 즉 부적절한 학제가 낮은 효율성의 주된 원인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균형 있는 교육과정을 완성하느냐에 따라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에도 바람직한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일반 무용교육과정 중 한국무용과 매스게임이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80%는 창작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창작수업 내용에 대한 분석에 앞서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표

면적으로 보았을 때 바람직한 구성이라 하겠다. 그동안 무용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학교 무용교과서에 대한 비판을 통해 창작무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창의적이며, 능률적인 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과정 개편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영재교육은 다양한 학습과정개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무용영재교육의 경우 '신체기능의 발달'에만 국한한 교육이 아닌 '감성교육'까지 이루어지는 전인교육에 초점을 맞춘다면 꼭 영재를 위한 교육에 그치지 않더라도 일반인을 위한 교양 과목으로서의 무용교육에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사료된다. 무용영재들이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입상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영재교육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지금, 이상적인 한국 예술교육 실천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연구가 더욱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재교육을 포함한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내실 면에서 양질의 교육이 부족한 현안에 본 연구가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김화숙(2001). 중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에 기초한 창작무용학습의 내용과 지도모형,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2, 한국무용교육학회, 19-44.
- 문화관광부 ·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2006). 『예술영재교육 발전방안 연구』.
- 신은경(2004). 21C 대학 무용교육과정을 위한 패러다임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5(2), 한국무용교육학회, 113-127.
- 임명주(1997). 한국 무용교육의 실태와 과제, 『대한무용학회지』 22, 대한무용학회, 159-170.
- 정희자(2003). 무용영재교육의 필요성과 선별기준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지』 35, 대한무용학회, 153-168.
- \_\_\_\_\_(2005). 발레영재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외국 발레학교의 현황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6, 한국무용교육학회, 21-41.
-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2006). 『예술영재교육과정 연구』.

문화관광체육부 [www.mcst.go.kr](http://www.mcst.go.kr).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www.kiga.or.kr](http://www.kiga.or.kr).

미국 그린빌 예술영재교육센터 [www.fineartscenter.net](http://www.fineartscenter.net).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 예술-과학기술 영재학교 [www.args.k12.va.us](http://www.args.k12.va.us).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예술-인문학 영재학교 [www.scgsah.state.sc.us](http://www.scgsah.state.sc.us).

영국 라반센터 [www.laban.org.uk](http://www.laban.org.uk).

영국 런던현대무용학교 [www.theplace.org.uk](http://www.theplace.org.uk).

영국 리버풀 공연예술 인스티튜트 [www.lipa.ac.uk](http://www.lipa.ac.uk).

영국 왕립무용아카데미 [www.rad.org.uk](http://www.rad.org.uk).

프랑스 앙제 국립현대무용센터 [www.cndc.fr](http://www.cndc.fr).

프랑스 파리 국립 음악·무용 콩세르바트와르 [www.cnsmdp.fr](http://www.cnsmdp.fr).

논문투고일	2010년	10월	31일
심사일		11월	9일
심사완료일		11월	30일

**Abstract****A Study on the Gifted Education Programs in Korea**

In-Joo Chang

*Administrative Director**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Recently, Korean Government expanded art education in primary and secondly schools, for which 4,156 lecturers of art would be recruited and supported. The rapid expansion of art education needs a new curriculum. The gifted education of art promoted by the government from 2002 provides a good program for general students. In the area of dance, however, we raise an important issue in developing a new curriculum for dance education. We compare the curricula in some famous U.K. and U.S. schools with the Korean one. Gifted education of dance in Korea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skills, which successfully produced some world class young dancers. However, those in U.K. and U.S. emphasize rather general education of dance such as development of artistic feeling, creativity and presentation skill, choreography and critical understanding of dance other than the technical skill of dance. We propose to include those important factors in a new curriculum for the advancement of dance in Korea.

**keywords:** giftedness(영재성), gifted education(영재교육), dance education(무용교육), curriculum(교육과정), choreography(안무)